

01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이야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유아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 이야기는 놀이에 생동감을 준다.
 이러한 이야기는 때로는 짧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3세 유아의 놀이가 너무 짧다거나
 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주제가 있고 이와 연결되는 놀이만이 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놀이 시간에 2명의 유아가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놀이인지 궁금하여 놀이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3세 유아	2019년 7월, 오전 놀이 시간	음률 공간

<교실 전경>

유아는 아침에 등원하여 놀이 자료를 탐색하기도 하고, 다른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기도 한다. 몇몇의 유아는 교사에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쌓기 놀이 공간에 먼저 온 유아는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를 굴러 보는 놀이를 하고 있다. 또 미술 공간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놀이 자료를 탐색해 본다. 어떤 유아는 교사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하며, 그림책을 보기도 한다.

수연이는 먼저 와 있는 은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음률 공간으로 달려간다.



이야기 1. “여기가 바로 수영장이라”

음률 공간에서 악기 소리를 탐색하던 은지와 수연이가 코끼리 코 악기 두 개를 연결한다.



코끼리 코 악기는 수영장과 미끄럼틀이 되고, 실로폰 채는 수영하는 사람이 된다. 은지와 수연이는 실로폰 채를 들고 수영하는 흉내를 낸다.

여기가 바로 수영장이라.

어푸어푸 수영을 한다.

(코끼리 코 악기의 한쪽을 세우며) 그리고 여기는 미끄럼틀이라~.

(실로폰 채를 미끄럼 태우며) 하하하 재미있다. 나도 미끄럼틀 타야지~.

이야기 2. “내 침대야”

은지는 사람이 된 실로폰 채가 수영장 속에서 추워한다고 이야기하며, 실로폰 채가 수영장 미끄럼틀을 걸어 나오는 흥내를 낸다. 수연이는 코끼리 코 악기를 침대로 변신시켜 사람이 된 실로폰 채가 잔다고 표현하며 눕힌다. 그러자 은지도 실로폰 채를 침대 위에 눕혀 본다. 그러나 하나의 코끼리 코 악기에 두 개의 실로폰 채를 눕히려다 보니 자리가 좁아 실로폰 채가 자주 굴러떨어진다. 두 유아는 각자의 실로폰 채를 하나의 침대에 놓기 위해 실로폰 채를 밀어 보기도 하고, 서로 휘두르며 부딪혀 보기도 한다.



은지: (실로폰 채가 수영장 미끄럼틀을 걸어 나오는 흥내를 내며) 아이 추워. 난 밖에 나가야지.
 수연: (실로폰 채를 코끼리 코 악기 위에 눕히면서) 난 자야지.
 (실로폰 채가 침대로 변신한 코끼리 코 악기 위에서 굴러떨어지자 실로폰 채를 들고 흔들며)
 내 거야~. 내 침대야.

이야기 3. “이불이 필요해”

침대에 사람이 된 실로폰 채 두 개를 눕히려고 하는데 실로폰 채가 자주 굴러 떨어진다.

수연이가 코끼리 코 악기 한 개를 빼서 세로 방향으로 덮어 이불을 만든다.



수연: 아. 자주 떨어지네. 어떡하지?
 은지: (코끼리 코를 하나 더 가져와 옆에 붙이며) 이렇게 하면 되지.

은지: 아니야, 안돼. 침대를 옮기면 어떻게 해.
 수연: 이불이 필요해.
 은지: 그러면 나도 이불 덮을래. 같이 덮자.

은지는 코끼리 코 악기를 한 개 더 연결하여 침대를 만든다.

“이렇게 같이 덮자~.”

두 유아는 세로 방향의 이불 한 개로 두 개의 실로폰 채를 덮을 수 없자, 이불의 방향을 가로로 바꾸어 같이 덮는다.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낸 은지와 수연이는 만족해 하며 마주보고 웃는다.



이야기 4. “나는 떠내려가고 있어!”

이제 코끼리 코 약기는 움직이는 배로 변신한다. 은지는 코끼리 코 배에 실로폰 채 사람을 태우고 말한다.

은지: 이건 배야. 갈라지는 배.



은지: (배를 멀리까지 움직여 보며)
수연아! 나 좀 도와줘. 나는 떠내려가고 있어!
수연: (은지에게 가서 도와주는 흉내를 내며)
내가 도와줄게!

이야기 5. “위험해 여긴 갈라져 있어”

수연이와 은지는 실로폰 두 개를 가져와서 각각 하나씩 앞에 놓고 실로폰 채가 실로폰의 건반 하나하나를 건너는 놀이를 한다.



수연이와 은지는 15분 동안 음률 공간의 코끼리 코 약기, 실로폰 채, 실로폰을 가지고 놀이하며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며 놀이를 한다.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은지와 수연이는 아침 등원 시간에 만나 반가움을 나눈다. 그리고 나서 음률 공간에서 코끼리 코 약기로 수영장, 수영장 미끄럼틀로 상상하여 표현하고, 실로폰 채로는 사람으로 가상하여 수영장 놀이를 한다. 두 유아는 수영장 놀이와 자신의 경험(수영장 침대, 물속에서 나와 추웠던 경험 등)을 연결하여 침대를 만들고, 실로폰 채가 춤지 않도록 침대 이불을 만들어 덮어 주며 놀이를 이어 간다. 그러다 침대와 이불이었던 코끼리 코를 배로 만들어 떠내려가는 배 이야기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두 유아의 이야기에는 실로폰이라는 새로운 놀이 자료가 추가된다. 그러자 실로폰은 위험한 다리가 되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슈퍼맨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변화한다. 이처럼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연결된다.

이러한 이야기 짓기 놀이에서 상상을 기꺼이 받아 주는 또래가 있어 유아는 몰입한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다. 3세 유아의 소통 능력은 뛰어나다. 이러한 소통 능력으로 인해 유아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약기도 유아에게 이야기 짓기의 소재가 되는 놀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3세 유아도 또래와 상상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놀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개 영역 내용 연계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 유아는 놀이하는 또래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지어 말하며 놀이를 이어 간다. 유아는 상상을 통해 다양한 상황(수영장, 침대, 이불, 표류하는 배, 다리 등에서 놀이하는 상황)을 지어내고, 지어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짓는 것을 즐긴다.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 유아는 수영장, 침대, 표류하는 배, 다리 등에서 놀이하는 상황을 자유롭게 이야기로 표현한다.

교사 성찰

음률 공간에서 유아가 악기 소리를 탐색하고, 악기를 연주해 보며, 노래도 부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해 보길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악기들이 여러 가지 사물로 가작되어 이야기 짓기와 상상놀이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유아를 바라보며 ‘악기의 용도와 연주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할까?’, ‘이렇게 놀이하는 것도 허용해 주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도 두 유아는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즐거운 상상놀이를 이어 가고 있었어요.

짧게 흘러가는 놀이 속에 유아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내용이 수시로 변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유아들의 놀이는 참여한 유아들이 각자의 경험을 의미 있게 연결해 가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배움을 습득해 가는 것을 보여 주었어요.

단지, 음률 공간에서의 악기라고 해서 놀이 자료의 본래 놀이 방법만을 중요하게 안내하였다면, 그래서 이러한 놀이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즐겁게 전개되는 유아의 놀이는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유아들은 때때로 교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놀이하지만 그러한 놀이를 긍정적으로 허용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새로운 배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사 지원의 특징

유아가 재미있게 놀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놀이하도록 하였다.